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해외 스포츠 리포타주 : 르노 컨셉 전시관

글/ 사진 : 이성재

아프리에 르노 L'atelier Renault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르노의 컨셉 전시관이 있다. 이 전시관에서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의 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닌 르노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 및 서비스를 표출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는 전시관이다.

아뜨리에 르노 (L'atelier Renault)

자동차 전시관, 카페, 브랜드 홍보관, 이러한 단어를 한곳에서 연상케 하는 전시관이 프랑스 상젤리제 대로변에 위치한다. ‘르노’의 컨셉 아뜨리에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자동차들, 자동차 소품, 장난감들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빠르게 훑어 보아도 여러가지 테마를 구분할 수 있으며,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컨셉 모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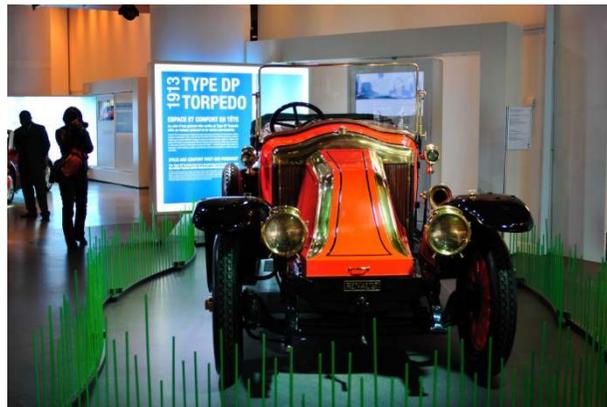
자동차 회사의 전시관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컨셉 모델. 가장 눈에 띄는 입구에 위치하며, 창 밖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매장을 둘러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양산 단계이전의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차도에서는 볼 수 없는 모델은 소비자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컨셉을 지향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Eco 시스템 홍보

르노 또한 에코 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효율, 고연비, 저탄소에 대한 르노의 생각, 발전 방향, 지향점, 비전을 한 테마로 지정하여 소개한다. 단계별 발전 순서를 잘 소개해 놓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끔 꾸며 놓았다.



르노 역사 테마

F1 경주용 자동차부터 최초 자동차 모델까지... 모든 모델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모델들의 전시는 르노 자동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한다. 모터쇼의 컨셉 역사관에서나 볼 수 있는 초기모델, 1950년대에 있었던 자동차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불거리이며, 살아있는 역사 체험관과 같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에코 카페

친환경을 지향한다는 르노의 전반적인 무드를 살린 카페이다. 전시관 2층에는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으며, 앉아서 여유롭게 전시관 전체를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으며, 옆으로 보이는 창문으로 상젤리제 거리도 눈에 들어온다. 전체적인 무드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작은 소품, 장식품 하나하나에 세심함이 보인다. 그네 형식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설계한 부분이 아뜨리에 르노가 최초 공개되던 2000년 당시 이슈가 되었을 정도이다. 그네 형식의 내부구조는 아뜨리에 르노 전시장에 패션쇼 또는 미니 모터쇼가 있을 시 변형을 줄 수 있도록 한 모듈 방식을 갖는다.

